

# 웹사이트의 그리드 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최적의 형태로  
보여주기위한 방법으로 UI를 배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기본전제

### 컨테이너폭

홈페이지의 정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의 가로사이즈

### 브라우저의 전체폭

방문한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는 모니터의  
크기에 비례한 브라우저의 가로사이즈

## 사용자에게 홈페이지란?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목적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문한 사용자들이 어렵지 않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이 불편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우리의 모니터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모니터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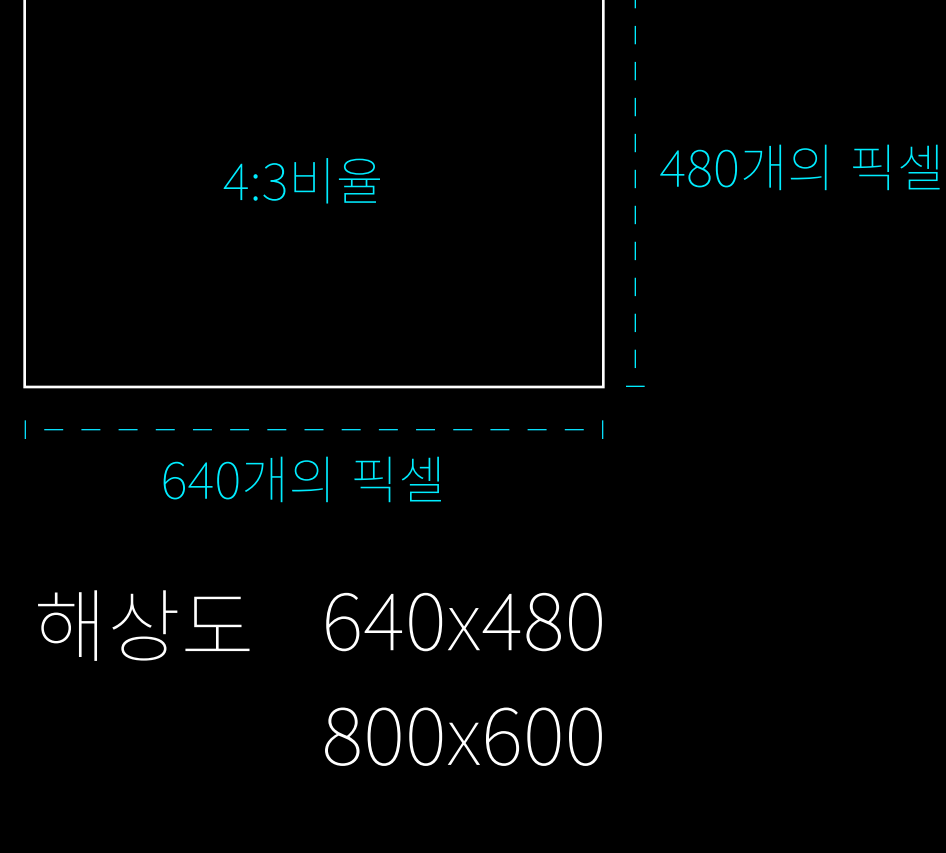
모니터들 마다 제각기 크기와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는 세로 스크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 가로스크롤에는 익숙하지 않으며,  
세로스크롤은 간편히 마우스의 휠을 사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가로스크롤은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좌우로 정보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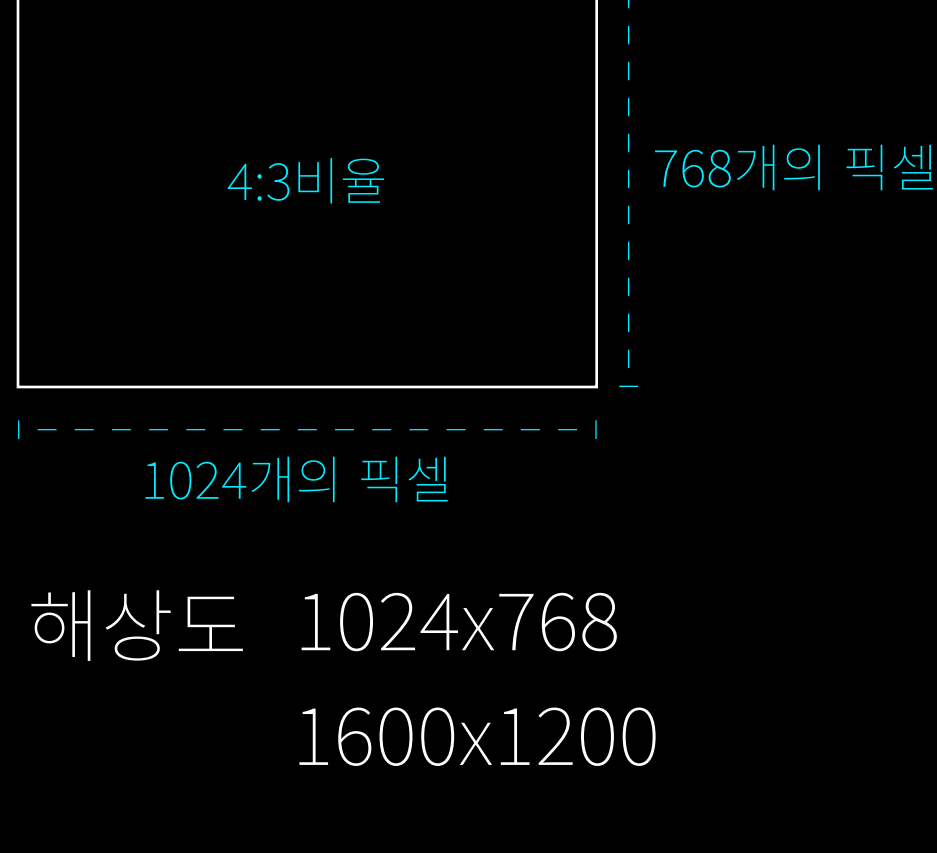
우리가 만드는 사이트는 강원도산골에 사시는  
굉장히 오래된 모니터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가  
보신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위해선  
그분들의 모니터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 모니터의 발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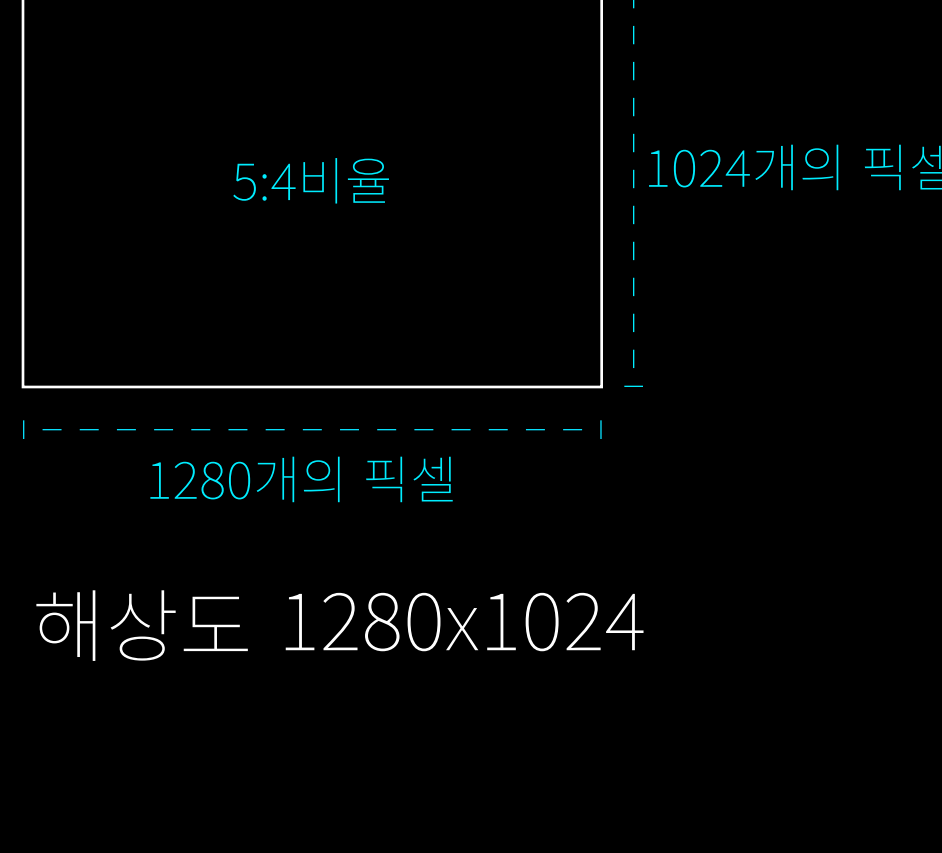
### 199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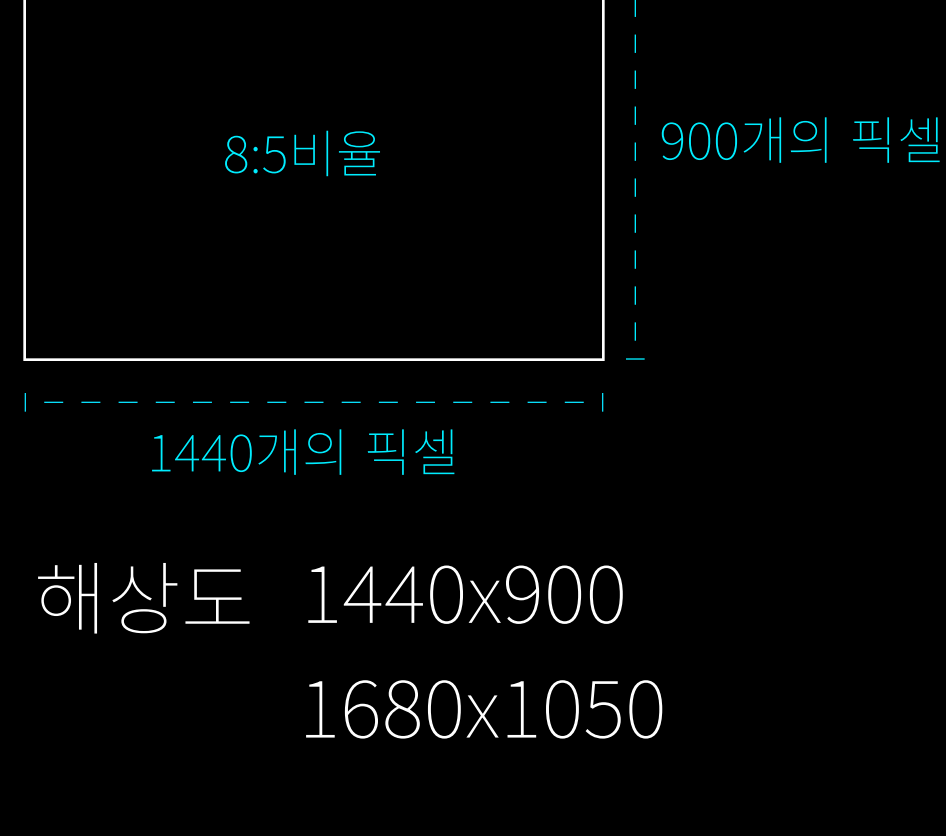
### 1990년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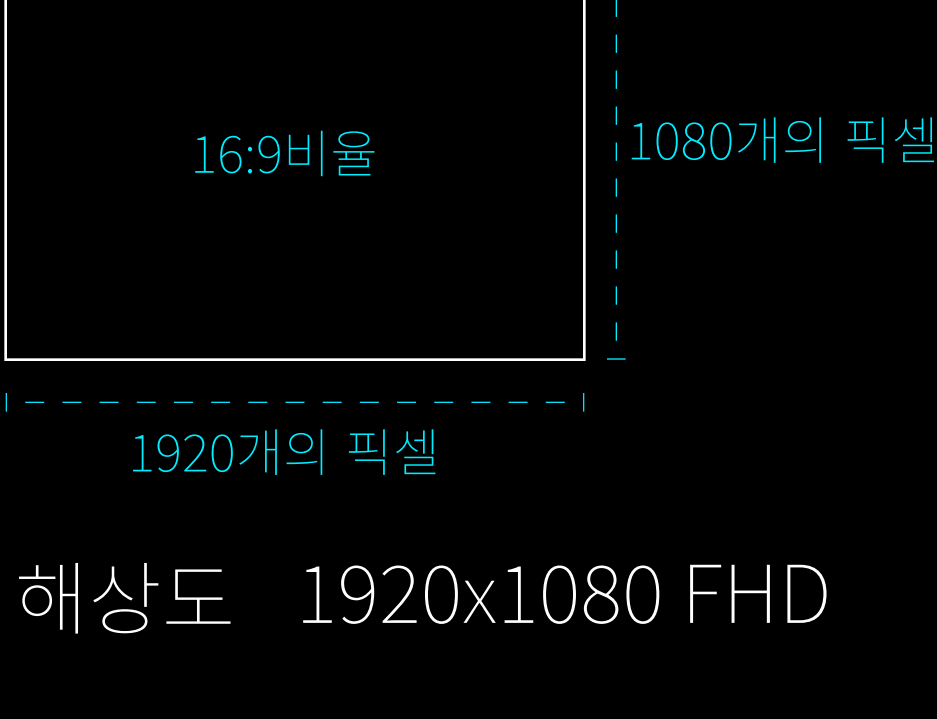
### 200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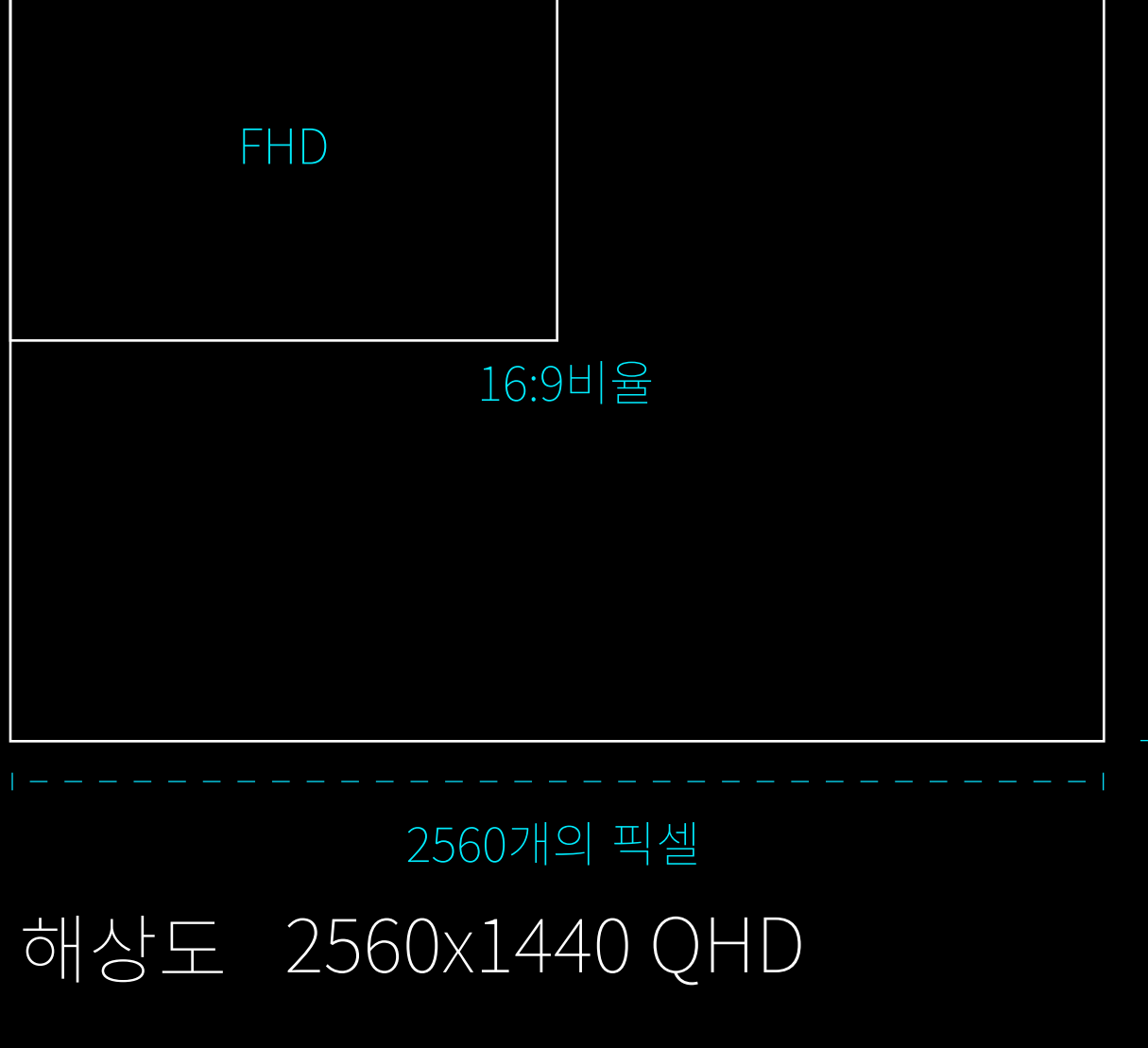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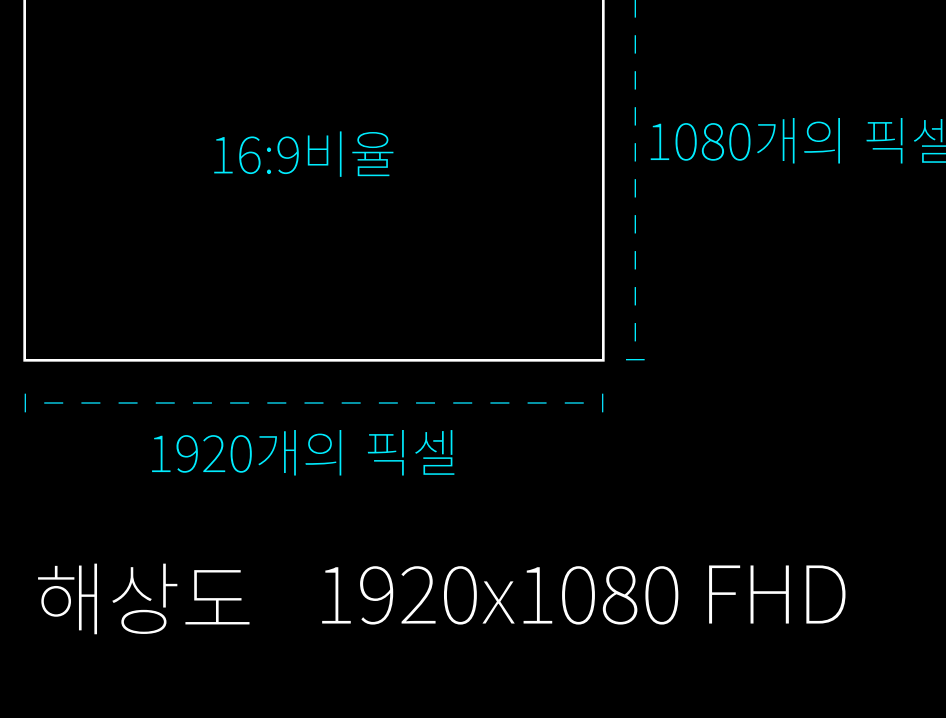
### 2000년대 중



### 2010년대



### 2020년대~



모니터의 발전은 끝이 없다...

해상도 3840x2160 UHD  
해상도 5120x2880 UHD

## 그럼 우리는 컨테이너 폭을 어떻게 정해야하는가?

이렇게 모니터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도 디자인을 하는 우리가 수고스럽다.  
그럼 우리는 콘텐츠가 보이는 공간 컨테이너 가로폭을 얼마로 지정해야할까?

그것에 대한 뚜렷한 정답은 없다.

디자인이란 자유롭기에 전 세계의 웹사이트들은 각각 다른 컨테이너 공간너비를  
활용하고있다.

하지만 기준을 잡는다면 대체적으로 강원도 산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90년 중반 이후에 사셨다는 가정하에 그 때 당시의 모니터 가로폭 1024픽셀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 그 이전 모니터는 고장났을 확률이 높다. CRT모니터의 수명은  
길지않으며, 모니터가 나타낼 수 있는 색상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PC웹사이트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보통 가로폭 1200픽셀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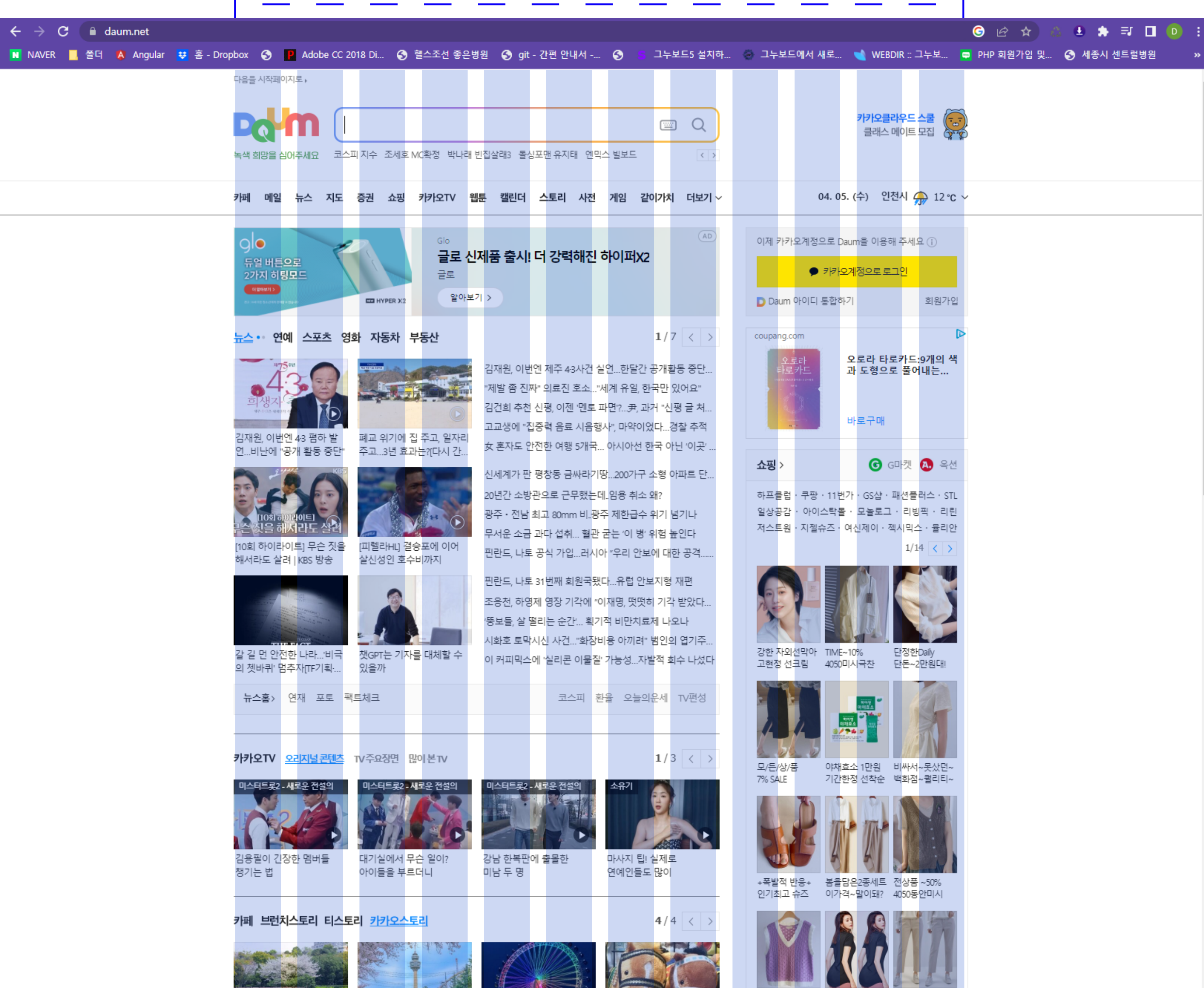
### 브라우저 전체 가로폭

### 컨테이너 가로폭(1130픽셀)



### 브라우저 전체 가로폭

### 컨테이너 가로폭(990픽셀)



## 저 위에 있는 세로로 그려진 네모난 줄무늬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홈페이지의 일정한 간격 정리를 위해서이다.  
그리드를 미리 그려놓으면 그리드에 맞춰서 콘텐츠를 배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의 콘텐츠간 간격이 일정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어 보이고 그렇게되면 정보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웹사이트 디자인할 때 보통 12단 그리드를 사용한다.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의 여백을 Gutter라고 부른다. Gutter값은 자유롭게한다.

12Columns / Container-width 1200px / Gutter 30